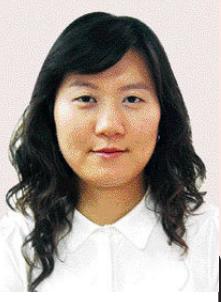


[인터뷰]

윤샛별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지도사>



- 봉사활동의 의미는?

▶봉사활동은 단순히 점수를 위한 시간 채우기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행위임을 숙지해야 한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동정이나 시혜의 마음가짐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것 보다는 자신이 활동하게 될 기관이나 시설의 특징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고 준비하도록 한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알고 있으며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노인 복지기관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박막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 주된 업무로 밤 마사지나 만다라, 신책 등의 일을 하게 된다.

- 좀 더 재미있고 특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때우거나 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고 좀 더 즐겁게 활동 할 수 있는 기관·활동을 선택해 그에 맞는 정보를 숙지하고 활동하면 보람 있고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악기나 종이접기 등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봉사활동의 목표가 진학이 아니라 보람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봉사 활동을 하기보다는 봉사활동 계획을 미리 짜고 나서 활동 후에 니름대로 평가를 해보도록 한다. 봉사 일지를 만들어 자신이 했던 일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름방학 자원봉사로 더 알차게”

- 청소년 봉사활동 가이드 -

봉사활동이 입시나 취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뛰어난 '현장학습'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제대로 된 봉사활동으로 서로 다른 인정하는 성숙함과 사회 경험까지 얻는 귀중한 시간을 체험해보자.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갔던 박형기(18·국제고 2)군은 이번 여름방학 때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가평 꽃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 박 군은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지금은 봉사활동이 즐겁고 보람된다"며 "앞으

로도 꾸준히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재단 광주지부 유길원 소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어가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산 교육"이라며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기를 당부했다.

봉사활동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youthvol.net), 한국복지재단 자원봉사나누미(www.bongsa.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bokji.net), 전국 시·군·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이다.

광주 청소년자원봉사센터(www.gjcenter.net)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활동 정보 게시판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는 약 700여 개의 여름방학 봉사활동이 등록되어 있다. 회원가입 후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클릭하면 접수된다. 현재 등록된 봉사활동으로는 ▲세대공감 협사랑 봉사활동·자원봉사 교육 ▲북구 여름방학 체험 봉사학교 ▲행복재활원 장애 아동 생활 도우미 활동 ▲조대병원 도서관 봉사활동 ▲광주 영신원 위문활동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봉사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3만 5천19명인데 반해 지난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의 청소년 비율이 3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월 1회 이상 참여율은 5%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1996년부터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1991년 13.6%에서 2006년 현재 90%로 봉사활동 참여율 자체는 높아졌지만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 곁에는 삶의 터전을 비롯해 송두리째 빼앗긴 이웃과, 소중한 가족과 순식간에 생

이별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

나에게 만약 이러한 아픔과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 못한 고통이 있다면, 어떠한 심정일까? 아찔하고, 눈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맙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통탄만이 가능할 것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감히 짐작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과 실의에 잠겨 가슴 아파 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 집안으로 새들어오는 작은 일에서도 경황이 없었고, 헉 없이 손이 모자라 허리조차 폐지 못했을텐데...

부지불식간에 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 가슴 아파하는 이웃들의 통곡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망연자실할 우리의 이웃에게 격려와 용기를 보내자.

태산도 작은 먼지가 모여 이룬다 하지 않던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격려와 위로가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실의에 잠겨있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주자. 우리 모두가 윤티리가 되어주자. 그리하여, 7월의 노래처럼 '우리고장의 철월이 따스함과 온정의 손길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는 계절'이 되도록 하자.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 기간 중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에 인도 음악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 4~6일, 18~20일에는 인도문화체험 텁플스테이도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와 인도 전통춤, 인도 명상음악 등을 체험하게 된다. 8월 말까지 경내의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축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1-852-1755, 3038

— 한국 실로암 선교회 내달 '장애는 개성이다' 캠프

— 대원사, 티벳박물관 5주년 기념 인도민속미술 특별전

—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이 개관 5주년을 기념해 8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영혼의 고향, 신비의 땅'이라는 주제로 인도 민속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